

41. 무조건적으로 나를 믿어라! 두려움과 의심, 불안의 폭풍이 격렬해.

2015.04.08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오 주님, 오늘 불평해서 정말 죄송해요.

(예수님) 너는 피곤해. 클레어, 나는 너를 용서해. 너가 이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진정으로 나에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라. 그렇게 하면 너의 관점과 사랑을 유지하기가 더 쉬워질 거야.

(클레어) 감사해요. 제발 제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오늘 여러번 그렇게 한 것처럼?

(클레어) 오, 그것이 주님이셨어요?

(예수님) 정말이야. 그리고 그것이 도움이 되었지?

(클레어) 네 그랬어요. 감사해요.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예수님) 너는 매우 인간이야.

(클레어) 주님, 오늘 밤 주님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예수님) 휴거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너만이 아니야.

(클레어) 저희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수님) 계속 기도하고, 내가 매일 너희들에게 보내는 신호를 지켜보고 너희들의 성경책에서 레마(말씀)를 열고, 나에게 말해라. 너희들의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말해라. 나는 듣기 위해 여기에 있으며 절대로 너희들을 혼자있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어. 나는 너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내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을 도와주는 것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의 그림자를 봐. 걸으로 용감함을 보여주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기독교 공동체는 나약함, 실패, 두려움 그리고 너희들 모두가 씨름하고 있는 개인적인 악마들에 대해 허용하지 않아. 그들은 그들의 상처에 성경의 반창고를 두드리는데 너무 익숙해서 그들의 내면의 감정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모습을 보여주어 그 감정들을 숨기는 법을 배웠어. 이것은 슬퍼.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거인처럼 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겁쟁이처럼 보이게 만들어. 나의 관점에서 너희들에게 말하면 너희들은 모두 겁쟁이야! 그러니 그것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진짜가 되어라.

다가갈 수 있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취약해지고, 진짜가 되어져라. 이곳이 은혜가 가는 곳이야. 가장 낮은 곳. 깨끗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은혜들은 나의 보좌로부터 가장 낮은 곳,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흘러내려. 가장 약한 사람들, 삶 그 자체보다 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나는 소중하게 여겨.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눈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때문이야.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 다윗은 자신의 옆에 있는 나를 보았고, 그는 나의 눈에 비친 그 자신이 가엾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위대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는 것에 시간낭비를 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는 사자들에서 거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에서 나를 찾았고, 그가 나를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는 실패하였어. 하지만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왔어. 그는 그것을 전에도 많이 보았고 나의 본성을 알고 있었어. 너희들이 실패하는 것은 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았을 때야.

(클레어) 주님, 제가 오늘밤 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저를 참고 견디고 있으세요?

(예수님) 왜냐하면 너는 나를 사랑하고 결국에 나의 사랑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나는 너의 감각, 너의 지혜가 너에게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여기에 적들을 남겨두지 말자. 적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어. 클레어, 너는 전투를 하고 있으며 너의 유일한 희망은 나에게 대한 완벽한 신뢰로 너의 자신을 나에게 완전하게 내려놓는 거야. 시험과 유혹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그것들은 맹렬할 것이지만, 너가 나와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꼭 붙잡고 있는다면 너는 극복해낼 거야.

(클레어) 주님, 저는 총총나무의 꽃이 피어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는 아이디어에 대해 절대적으로 불확실해요. 저의 감각과 저의 추론이 이것에 반대하고 있어요. 저는 치유사역에 대한 예언과 주님께서 휴거전에 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저에게 주신 환영으로 여전히 추론하고 있어요.

(예수님) 너는 추론하고 있어. 이것은 다시 너의 자만심과 지성에 있어. 클레어, 이것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어린 아이의 단순함과 매우 반대되어져.

너의 마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현명해.. “그분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사랑할 거야. 그분이 나를 오류속에 버려둘지라도 나는 그분을 여전히 사랑할 거야. 그분이

내가 부서지고 불타도록 허용하신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사랑할 거야.”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신뢰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듯이.. “나는 주님의 작은 공이야. 그분은 나를 침대 아래로 굴리고 그곳에 내버려둘 수 있어. 그분은 나를 가지고 잡기 놀이를 할 수 있고, 그분은 나를 벽에 던질 수 있고, 그분은 나를 선반위에 올려놓고 잊어버리실 수 있어. 그분이 나에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오직 내가 그분의 것이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었으니, 너는 모든 추리를 내려놓고 너의 온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기대라. 너 자신의 생각들을 모두 버려라.

(클레어) 주님,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 그래 나의 비둘기야, 정말로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모든 나의 신부들에게 말해. 너희들은 지금 두려움, 불안함, 의심의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어. 내가 지난 주에 이것들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어?

‘형제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1장2~4, 12절)